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복음과 상담」 제31권 1호(2023): 5-35
http://dx.doi.org/10.17841/jocag.2023.31.1.5

중독에 대한 기독교 병리학적 진단: 죄의 범주를 중심으로

김 규 보*

국문초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인간의 병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질서를 배제한 채 이해할 수 없다. 죄, 장애 및 질병, 고통의 범주를 고려하는 기독교 병리학적 이해는 전인적 차원에서 호소문제에 대한 왜곡된 창조질서를 진단할 수 있게 한다. 이 연구는 기독교 병리학적 접근 가운데 죄의 범주를 중심으로 중독 문제를 이해하고 성경적 상담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죄의 관점에서 중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질서가 깨어진 상태이다. 중독은 자기 사랑의 현세적 실재로 표출된 마음의 우상을 섬김이며, 이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의 부재로부터 기인한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의 부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게 하고, 경외를 잃어버린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과 만족을 위한 의지의 남용을 낳아 결국 중독자를 물질 혹은 행위에 집착하게 한다. 이렇게 죄의 범주에서 중독을 이해하는 기독교 병리학적 진단의 첫째 되는 함의는 중독의 궁극적인 해결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를 전제로 보게 하는 인지해석구조를 제공하고, 정서적 감화를 주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랑의 판단을 통한 중독 대항적 실천을 주의 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건의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 이 과정 가운데 교회는 구속그룹과 돌봄 문화의 형성을 통해 중독자들의 회복과 거룩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지도할 사명이 있다. 이 연구는 죄의 범주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독에 대한 다른 범주의 기독교 병리학적 탐구는 후속연구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중독, 기독교 병리학, 죄, 그리스도 닮음, 성경적상담

---

*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조교수

www.kci.go.kr

I. 여는 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창 1:27). 이 말씀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곧 그분의 성품, 의, 아름다움, 뜻과 섭리를 담아내는 존재라는 함의를 갖는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증거하며(요일 4:8),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사귐 가운데 일체로 소통한다(Gorman, 2010: 128-130; Vanhoozer, 2017: 102).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인간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난다(엡 4:15-16).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신다(시 145:17, NIV). 즉, 세 위격의 속성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소통, 모든 피조세계를 향한 다스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의 방식은 곧 사랑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마땅한 삶의 양식이다(김규보, 2021). 이는 초대 교부 Augustine(2017: 52)이 강조했던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랑"하는 "사랑의 질서(*ordo amoris*)"이다.

중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질서가 깨어진 상태이다. 중독(addiction)이란 어떤 물질이나 행동, 태도에 습관적 혹은 강박적으로 몰입하여 통제를 상실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Lembke, 2022: 27). 중독의 라틴어 어원 "additus"는 굴복하다(surrender) 혹은 넘겨준다(hand over)는 의미를 갖는데, 이는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포로로 잡혀 주인에게 넘겨진 노예를 지칭하는 언어였다(신성만, 2018: 59). Fransis F. Seeburger(1993: 40-41)에 의하면,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개인적 혹은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언가에 "자기 노예화(self-enslavement)"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중독자들은 무언가에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굴복한 상태, 곧 자기 통제력을 잃고 중독된 대상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며 생각과 의지, 선택, 행동이 그 대상에 종속된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중독은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을 상실하고, 오히려 그 피조물에 지배당하는 방식으로 사랑의 질서가 왜곡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일 2:15-16). 하나님

www.kci.go.kr

이 아닌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주인 삼아 과하게 의존하는 것이 곧 중독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독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이다. 이에 다수의 기독교 학자들은 중독을 "우상숭배"로 묘사한다(May, 2005: 45; Welch, 2001: 47). 같은 맥락에서 Health Lambert(2013)는 중독 치유를 위한 하나님 은혜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힘을 준다....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거룩과 사랑을 닮아가는 변화의 은혜가 필요하다"(21). 즉,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중독의 문제는 하나님과 존재와 개입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독치료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였던 초기 알코올중독방지협회(Alcoholic Anonymous) 그룹도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회복의 기초였다(Ragge, 1992; 최정헌, 2018). 이에 김영희(2016)는 초기 A.A. 프로그램의 놀라운 치유율은 성경적 관점의 자기 이해를 통한 결단과 죄 사함을 통한 구원,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곧 중독 행동을 끊는 결단을 넘어 죄인 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을 형성하는 것에 기인하였음을 강조한다. 오늘날 A.A.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포스트모던의 관점의 신, 곧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a Power greater than ourselves)" 혹은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신(God as we understood Him)"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그 회복의 효과를 잃었다는 지적이다(Arterburn & Stoop, 2012: vii). 즉, 중독 문제는 인간이 자기 욕망으로 공상해서 만들어낸 신이나 위대한 힘이 아니라 성경 계시가 제시하는 참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질서, 구속 은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의 많은 이론들은 중독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도덕 및 의지모델은 중독 문제는 개인의 충동 조절 능력의 저하로 이해하여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고 의지적 선택을 촉구하는 방향성을 갖는다(Benn, 2007; Heyman, 2009). 정신역동모델은 중독이 부적절한 양육 및 발달 경험, 성격 및 애착장애, 특정 시기의 내적 갈등 등과 연관하여 이해하고 성격 구조의 재건, 효과적인 방어기제 습득 및 건강한 대인관계 경험 등을 통한 자아의 성숙을 추구한다(Dodes, 2002; Essig, 2012). 인지행동모델은 자기에 대한 부적응적 사고, 중독 물질 및 행동과 관련한 왜곡된 신념, 학습 및 강화된 중독 현상을 탐색하여 인지적 오류의 수정 및 교정된 사고와 조화된 행동 패턴을 만들어 간다(Stein, Chambelan, & Fineberg, 2006). 사회문화 모델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사

www.kci.go.kr

회 환경의 영향과 책임을 강조한다(White, 1998). 질병모델은 중독을 신경생리적 질병 혹은 유전적 취약성으로 이해하며 개인의 책임보다 약물처방 등의 접근을 통해 증상 완화 및 제거에 초점을 둔다(Redish, Jenson, & Johnson, 2008; Rosenberg, Carnes, & O'connor, 2014).

특히 오늘날 임상심리 혹은 의학적 접근은 주로 질병모델에 기초하여 중독을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 사실 고대에는 중독을 장애나 질병으로 보지는 않았다. 질병 및 장애의 범주로 중독을 다룬 정신의학적 설명의 시작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 DSM)』이 출판된 1952년부터이다. 그 후, 196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중독(intoxication)과 습관화(habituation)를 약물의존의 개념으로 대체하기를 권고하여 1968년 DSM-II는 대마초를 포함한 많은 의존성 물질이 약물의존으로 포함되었다. 초기 DSM-I, DSM-II에서 중독은 인격장애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었으나, 1980년 DSM-III에서부터는 물질 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라는 개념이 소개되어 인격적 병리와 구분된 범주로 정의되었다(Rutherford, Cacciola, & Alterman, 1999; 홍이화, 2011).

1994년 DSM-IV에서는 남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 관련 장애 12개의 범주(알코올, 암페타민, 카페인, 대마, 코카인, 환각제, 흡입제, 니코틴, 아편류, 펜사이크리딘, 진정제-수면제-항불안제, 복합물질관련 장애)로 구분되었다. DSM-IV부터는 중독의 개념이 물질 남용과 물질 의존, 물질 금단, 물질 중독으로 세밀해지고, 각 범주에 따라 내성, 금단, 통제력 상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진단 기준도 마련되었다.

2013년 DSM-5에서 중독은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Substance-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라는 명칭으로 범주화되어 물질관련장애(물질사용장애, 물질유발장애)와 비물질관련장애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물질관련장애로는 10개의 유목(알코올, 타바코, 카페인, 대마, 환각제, 흡입제, 아편류, 진정제나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흥분제, 기타 물질)이 명시되었고, 비물질관련장애로는 도박장애(gambling disorder)가 소개되었다. 게임, 쇼핑, 인터넷, 스마트폰, 섹스 중독 등도 행위중독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으나 DSM-5에서는 아직 비물질관련장애의 하위 진단명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김청송, 2016: 679-680).

이와 같은 DSM의 구분과 진단, 현대의 다양한 이론들을 중독의 원인과 과정, 치료적 개입과 관련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독에 대한 많은 현대 이론들은 자연주의적 사고(naturalism)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www.kci.go.kr

와 섭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실재, 곧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조세계의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실재와 분리된 채 형성되는 세상의 어떤 논의도 환원주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독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치유, 예방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에 대한 성경적 실재(biblical reality)에 기초한 진단과 개입이 필요하다.

성경적 관점에서 중독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독에 관한 영적 해석만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다차원적 질서를 갖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신경생리, 심리관계, 가족체계, 사회문화, 영적 질서를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Bavinck, 2011: 318-328, 334-335). 따라서 성경적 관점의 중독 이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전인적 질서를 고려하여 중독 문제를 진단하고, 각 질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회복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성경적 실재를 바탕으로 죄, 장애 및 질병, 고통의 범주로 정신병리를 바라보는 기독교 병리학적 체계를 통해 중독 현상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죄, 장애 및 질병, 고통의 기독교 병리학적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전인적 차원의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지면의 한계로 본고는 중독에 대한 기독교 병리학적 진단 가운데 죄의 범주와 실천적 함의만을 다루며, 장애 및 질병, 고통의 범주는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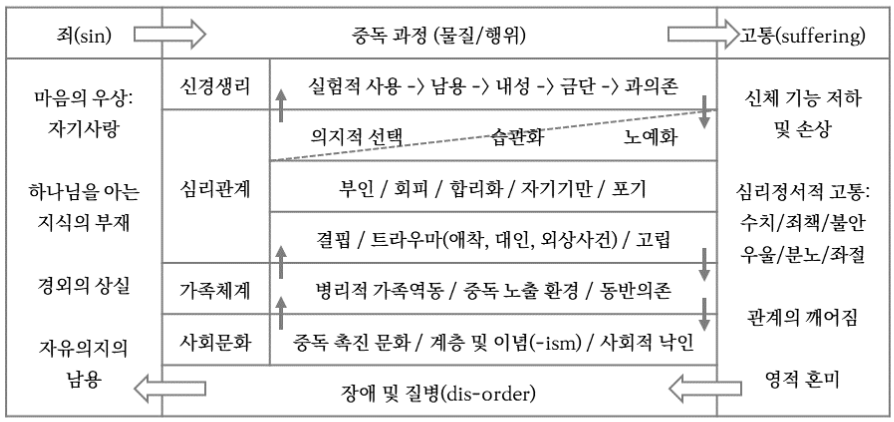
II. 펴는 글

기독교 병리학은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 전통을 진지하게 탐구하며 현대 심리학의 합리적인 발견들을 창조 은혜 안에서 비평적으로 또한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인간 병리에 대한 전인적 진단체계”이다(김규보, 2021: 343). 이는 질병에 초점을 두는 협의의 병리적 개념을 벗어나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기초로 죄와 고통의 범주는 물론 창조질서의 왜곡(dis-order)을 총체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과학적 환원주의와 영적 환원주의의 극단을 극복한다. 기독교 병리학은 죄, 장애 및 질병, 고통의 범주로 문제를 진단하는데, 각 범주는 독립적으로 분리된 역동이 아니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나선형적 순환으로 중독의 병리 역동을 강화한다. 기독교 병리학적 관점의 중독 이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지면의 한계로 이 연구는

www.kci.go.kr

죄의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표 1〉 중독에 대한 기독교 병리학적 이해



1. 중독과 죄

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주목할 점은 죄 진단의 목적이 정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함이라는 것이다. 종종 기독교 관점에서 중독 문제를 다룰 때 죄를 고려함이 마치 내담자를 죄인으로 정죄함으로써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중시켜 중독을 더 심화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중독을 하루아침에 제거해주신다는 망상을 조장한다며 기독교 신앙을 허황된 맹신 마냥 폄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경험한 사람 중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왜곡된 비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 알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고전 2:11-14).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중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독에 대한 적절한 이해도 아니며 기독교 진리가 주는 참 자유와 구속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지 못함이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내적 계시의 조명이 없는 한” 세상의 질서만으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다(Calvin, 2020a: 221).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 가운데 타락했고 그리

www.kci.go.kr

스도 안에서 구속과 회복을 경험하여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행하고 계신 구원 드라마를 살며 단 한 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된 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 병리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영적 회피이자 하나님 없이 문제를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는 교만일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창조와 구원을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 병리의 문제를 가져가는 겸손함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중독에 대해 무엇보다 먼저 죄를 고려함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정직한 자기인식이며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 없이는 죄로 타락한 오성을 가진 인간이 삶의 병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진단하고 치유할 수 없다는 겸손한 신학함(doing theology)의 실천이다. 인간 병리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의 계시를 좇아 창조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지식들을 겸손히 탐구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가장 높은 지혜보다 높기 때문이다(고전 1:25).

따라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모든 병리적 문제와 동일하게 중독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죄는 중독을 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간 마음의 병리적 역동이다. 중독에 다양한 생리, 심리, 가족, 문화적 요인이 있다는 사실이 중독이 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결코 논증하지 않는다. 중독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인간은 중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중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정신과 의사 Gerald G. May(2005: 15)가 옳게 지적한 것처럼 은혜는 “억압과 중독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인간 내면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적 혹은 외적 힘듦을 능가”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하나님 앞에서 중독을 바라볼 때 발견하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그분 앞에 죄인인가에 대한 자기인식과 그런 인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확신이다. 따라서 중독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죄를 다룸은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자유와 감사를 낳는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중독과 관련된 죄 문제를 진단해 보자.

1) 마음의 우상: 왜곡된 자기 사랑

성경은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며,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www.kci.go.kr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마 22:37-40). 천지 창조는 “가장 웅장한 스케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와 사귐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다(Gorgan, 2014: 101).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요 3:16),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롬 5:8). 곧,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God’s way of being)”이며 창조와 구속사를 통해 인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God’s story)”이다(Gorman, 2014: 34-35).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의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 존재와 생애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창조의 실재 가운데 세상의 피조물에 대한 참된 사랑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참된 사랑의 방향은 삼위 하나님을 향하며, 건강한 사랑의 질서란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창조의 질서에 따라 피조세계를 사랑함이다(Augustine, 2017: 52). 즉, 어떤 대상에 대한 바람직한 성경적 사랑의 형태는 그 창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라는 것이다.

중독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고 의존함이며 하나님 외 다른 것으로 삶의 만족을 얻고자 함이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잃음이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잃을 때, 죄인 된 인간은 그 공허함을 중독으로 채우려 한다. 사람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실천은 마음이 갈망하는 바를 몸으로 추구하는 하나의 예전과도 같다(Smith, 2016: 46). 어떤 물질이나 행위를 통해 행복과 성취감, 만족,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실천은 마음의 방향을 담고 있다. 따라서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다. 하나님 외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닌 우상을 찾고 우상을 만나고 우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짓 예전의 길, 곧 중독으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 경고한다(신 5:7-10; 엡 5:5).

우상은 단순히 땅의 것으로 만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혹은 이방의 다른 신이 아니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에 세워진 충성과 헌신의 물리적 표현”이다(Welch, 2001: 48). 즉, 우상숭배의 본질은 그 형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사랑의 질서가 어긋남이다. Timothy J. Keller(2011: xviii)는 돈, 성공, 소원, 사랑, 권력,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만든 신(counterfeit

www.kci.go.kr

Gods)," 곧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간의 마음은 종교개혁자 Calvin(2020a: 294)이 "우상들의 영원한 공장(idolorum fabrica)"이라고 묘사할 만큼 그 안에 가짜 하나님, 곧 우상을 좇는 죄 된 본성이 있다. 이에 Welch(2001: 47, 56)는 중독은 본질적으로 "우상숭배(idolatry)"이자 "간음(adultery)"의 죄라고 지적한다. 창조주가 아닌 우상화된 피조물을 통해서 복을 얻겠다는 마음이 중독의 근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견고한 우상은 중독적으로 추구하는 대상 자체가 아니다. 물질이나 행위나 상관없이 우상화된 대상을 과하게 추구하는 중독의 본질은 그 대상을 통해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Welch, 2001: 49). 결국 우상은 자기 사랑의 수단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중독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한 시도이며 이는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닌 원죄의 속성과 다르지 않다(창 3:5).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무언가를 통해 자기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왜곡된 자기사랑이 곧 중독의 영적 본질이다. 결국 중독은 우상숭배를 넘어 자기숭배이다. 따라서 중독의 진정한 문제는 술, 약물, 인터넷, 게임, 섹스 등 중독을 일으키는 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을 잃고 자기를 숭배하는 "나의 마음"이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2) 참 지식의 부재

중독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잃게 한다. 시편 저자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라고 기록한다(시 115:8). 이는 우상숭배로서의 중독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마음의 역동을 잘 드러내 주는 말씀이다. 눈과 귀, 감각이 없는 우상의 형상 마냥, 우상을 좇는 자들도 눈이 멀고 귀가 먹고 감각이 무뎌져 점점 하나님의 창조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결국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잃는다는 것이다(시 114-7). 이런 인간의 양상에 대해 성경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고 묘사한다(사 44:18; Welch, 2001: 50).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밝히 보여주는 거울이며 표징"이다(Calvin, 2020a: 198). 모든 피조물을 통해 당신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해 Calvin(2020a)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www.kci.go.kr

>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던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날마다 자기를 공공연히 보이신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눈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받게 하신다....하나님은 자기의 작품 각각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확실한 표지를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새기셔서 아무리 거칠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도 그 자신의 무지로 변명할 수 없도록 하셨다”(198).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비로소 존재의 타당성, 곧 창조 목적에 합당한 질서를 갖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 Calvin(2020a: 198)은 “누구든지 행복에 이르는 문”에 이를 수 있도록 “복된 삶의 최고 목표”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기 위함이라고 가르친다. 즉, 참된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복된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e.g., 창 1:1; 느 9:6; 시 93:1; 146:1-10; 전 3:11; 사 45:18; 요 1:1-3).

중독에 이르게 하는 모든 물질이나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에서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존재의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중독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는 타락한 피조세계의 질서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중독은 창조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 대신 중독자는 술, 마약, 게임, 인터넷, 쇼핑, 부적절한 관계 등 다양한 세상 물질과 행위를 수단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거나, 자기에 대한 정직한 직면을 부인한 채 우상화된 자기 이미지의 허상에 빠지거나, 불편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갈망에 사로잡힌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지 못한 채, 중독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통해 자기 스스로 만족과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중독은 그것을 약속해 줄 것처럼 일시적인 만족감으로 중독자를 미혹한다. 그러나 중독된 사람의 신체는 내성과 금단의 역동에 의해 더욱 중독 대상을 갈망하게 된다. 자기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던 물질 사용 혹은 행위가 오히려 중독자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허망한 우상에게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라고 매달리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사 44:17).

정신과 의사 May(2005: 16)는 과거 자신의 중독 과정을 성찰하면서 중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영적 굶주림”이었음을 고백한다. 하나님 외에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허기

www.kci.go.kr

를 세상의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는 우매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죄의 굴레는 하나님만이 마음의 공허함을 온전히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모든 만족의 근원임을 아는 참된 지식의 부재로부터 기인한다. Augustine(2016: 26)이 회심 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마음은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 중독 대상에 집착하는 사고와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의 부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부정, 더 나아가 "우상들의 영원한 공장"이라는 인간의 죄 된 본성에 대한 무지이다(Calvin, 2020a: 294).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분리되지 않는다(Calvin, 2020a: 164-65).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notitia vera)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참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 지식도 없다" (문병호, 2013: 46).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고, 타락한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참 지식이 있다면, 사람은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찾지 않게 되고, 허망한 것에 종노릇 하던 삶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에 이르는 지식이며 중독으로부터 구원하는 은혜의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있는 한 중독은 결코 신자를 지배할 수 없다.

3) 경외의 상실

중독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상실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송영과 예배와 거룩한 삶이 따르는 경건한 지식"이기 때문이다(Calvin, 2020a: 172).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분리되지 않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욥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했고(욥 42:6),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의 앞에서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엎드려 고백했다(눅 5:8). 죄인된 사람의 언어로 감히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 인간의 마땅한 반응은 그분을 향한 경외이다. 경외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감탄과 그분의 자비에 대한 감사, 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삶의 방식을 갖게 한다(Beele & Smalley, 2019: 79-80). 하

www.kci.go.kr

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 그분의 선하심과 죄인들을 향한 사랑, 그분의 죄를 향한 진노와 심판을 진실로 안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다고 기록한다.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선포한다(시 34:7-9). 이 본문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아는 전인적인 생활양식이다(DeClaissé-Walford, Jacobson, & Ranner, 2019: 399). 즉,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기초이자 지침으로 삼는 경건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 경외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천사가 진을 치며 보호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고난이나 아픔, 유혹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도망치는 상황이다. 이 문맥을 고려할 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고난이나 핍박, 아픔이 없을 것이라는 예언적 선언이 아니라, 삶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와 복의 유일하고 확실한 근원"이며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권세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DeClaissé-Walford, Jacobson, & Ranner, 2019: 399). 따라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만족과 유익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 안에 거할 때 인간의 모든 결핍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는 중독과 양립할 수 없다. 세상의 어떤 중독 물질이나 행위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 세상의 것은 결코 마음의 결핍을 온전히 채울 수 없고 반드시 마음에 "부족함"을 남긴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자리이며, 그 자리를 "은혜와 복의 유일하고 확실한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 해도 그 대상은 "부족함 없음"의 은혜를 허락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4) 자유의지의 남용

경외함을 잃어버린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지가 아닌 자기 영광과 만족을 위한 의지를 갖는다. "사람의 의지는 자유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를 얻는다"(Calvin, 2020b: 130) 참된 자유는 은혜의 선물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참된 자유는 단순한 인간의 선택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

www.kci.go.kr

여함으로써(롬 6:1-11)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게 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의미한다(문병호, 2013: 237).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오직 거듭난 사람은 전적인 은혜로 기꺼이 선을 행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문병호, 2013: 112).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의 멍에를 벗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것이다.

Calvin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3가지로 구분한다. 칭의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 성화의 은혜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 연약한 사람을 위해 삼가고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매이는 자유이다(문병호, 2013: 238-244).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강조한다(갈 5:1).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유를 거듭난 의지에 따라 성화와 덕을 세우기 위해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독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다시 육체의 소욕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 남용한다. 결국 중독은 하나님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좇음이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경건을 잃을 뿐 아니라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삼가는 자유를 져버리는 행위이다.

자유의 남용은 타락한 자연의지에 지배당할 때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의지와 자유의지의 구분이 필요하다. 자연의지는 자연이성의 분별에 의존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으로 오염된 자연의지는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을 벗지 못한다(롬 7:18-19). 즉, 타락한 인간의 자연의지는 여전히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상태, 곧 "죄의 종으로 매인" 의지이다(문병호, 2013: 109). 반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 의지"로서 "의의 종으로서 의에 매인 거듭난 사람의 의지"이다. (문병호, 2013: 109).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라는 것이다(문병호, 2013: 108). 태초의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나 죄 가운데 타락함으로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의지가 갱생되었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유의지로 모든 것이 가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지는 않는다. 덕을 세우고 이웃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삼가고 스스로 사랑과 양심의 법에 메인다.

이런 맥락에서 중독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남용이다. 물론 중독은 개인의 의

www.kci.go.kr

지 외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알코올의 경우 생리적으로 체내 수분량이 적고 체지방이 많거나 알코올 분해효소가 적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쉽게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강선경, 이중교, 2010). 낮은 자존감이나 상실감 등의 심리적 요인이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역동도 중독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다(김정숙 외, 2021; 민정원 외, 2010; 이소영, 양영미, 윤지영, 2021). 그러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중독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중독 물질의 사용과 행위를 선택하고 과의존 상태로 발전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 의지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성도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23-24, 31).

2. 중독에 대한 죄 진단의 실천적 함의

죄의 범주에서 중독을 진단할 때, 중독은 우상을 수단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사랑을 좇음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그분을 향한 경외의 상실,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죄 문제의 해결은 중독 치유를 위해 신경생리, 심리관계, 가족, 사회문화 요소에 대한 치료적 접근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 장에서는 죄의 범주에 대한 고찰이 중독 치유에 주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1) 중독의 궁극적 해결되신 그리스도

중독에 대한 죄 진단의 첫째 되는 의미는 중독의 궁극적인 해결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저주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화목과 평안을 누림을 증거한다(e.g., 골 1:13-20; 엡 1:17; 롬 3:24; 5:10-11, 8:21; 딛 2:11-14).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와 분리된 인간의 참된 회복과 변화는 가정할 수 없다. 그리스도 닮음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창조된 인간의 온전한 질서이다. 따라서 중독 치유의 궁극적인 방향은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리스도 닮음은 현실과 분리된 지엽적인 종교 개념이 아니다. 그리스도 닮음(Christiformity)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극히 현실

www.kci.go.kr

적인 삶의 질서이며 구원 서정인 동시에 성경적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다(김규보, 2019).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떠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갈 5:16-24).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불필요한 일들에 속박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충만한 평온”을 얻고, “의에 대한 소망”과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참 자유”를 얻는다(문병호, 2013: 239). 즉, 죄인된 인간을 불필요한 속박, 곧 죄뿐만 아니라 중독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고 평안과 소망과 자유를 주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며, 그분을 좇는 삶을 사는 참된 자유인이 됨으로써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마 11:28-30, 16:24; Calvin, 2020c: 533-50). 사람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행 17:28).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적 중독 치유는 그리스도 외 존재하는 사랑의 대상, 곧 마음의 우상을 탐색하여, 그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실천은 마음의 방향을 가리키고, 몸과 마음의 기울어짐은 사랑의 대상을 향하며, 그렇게 형성된 중독은 결국 하나님 사랑을 대항하는 거짓 예전이 된다. 기독교 철학자 James K. A. Smith(2016: 11-12)는 사람이 원하고 갈망하고 욕망하는 바가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형성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사랑하는 것을 향하고 그 대상이 결국 사람의 존재와 삶의 내용을 채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은 하나님 사랑의 재형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기뻐하며 경건한 삶의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존재와 삶 자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 간다. 이런 예배적 삶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리는 참된 자유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중독이라는 우상과 거짓 예전은 견뎌낼 수 없다.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요 1:5).

2)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인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적 깨달음이나 통찰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의 조명 아래 믿음 안에서 “경건한 정서”(Calvin, 2020c: 57)와 “확실한 감화”(Calvin, 2020c: 62)를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형성되는 하나님에 관한 전인적 앎, 곧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 한평

www.kci.go.kr

생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의 의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경건을 낳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아는 것이다(Calvin, 2020a: 173). 이 지식은 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인 것과 타락한 인류를 위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 지식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 아래 창조질서와 섭리를 전제로 보게 하는 인지해석구조(cognitive-interpretive frame)를 제공해 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을 아는 지식과 분리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앎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과 타락한 형상됨,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형상이며 마지막 날 온전한 부활의 형상을 입게 됨을 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알기에 그 형상을 잃은 타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존하며 감사할 줄 알며, 여전히 본성 속에 남아 있는 죄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마지막 날 온전한 부활을 소망하게 된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기 정체성과 의미,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게 한다. 자기를 아는 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온다(Calvin, 2020a: 165).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기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갈 삶에 대한 지식도 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계신 것과 행해야 할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 결국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Calvin, 2020a: 172; 문병호, 2013: 47-48). 조직신학자 John M. Frame(2015: 112)은 “인간의 의무를 규정하는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며 “신학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무를 정해주는 생활 전반의 규범이자 실제적 윤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 자기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과 실천이 점차 달라진다(고후 5:17).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으로 알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으며 불경과 위선 가운데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 대신 두려움과 경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된다”(Bayly, 1994: 25).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함이 가능한가? 하나님 앞에서 마약에 취하고,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취하고, 도박에 빠질 수 있는가?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www.kci.go.kr

진정 아는 사람의 삶이 아니다. Calvin은(2020a)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이 그것[경건]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는 것, 자기들이 그의 부성적 돌보심에 의해 양육된다는 것, 그가 그들 자신에게 모든 은총을 베푸는 조성자시라는 것을 지각해야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밖에서 찾지 않게 된다"(174).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의 중독치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유한다. 이는 단순히 성경공부를 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인 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삶의 순간에서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자기 성공과 만족을 지향했던 삶의 선택과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험적 선택이 과의존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있듯이 중독으로부터의 변화도 인내와 성화의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성도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향한 경외함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중독 행위에 대해 스스로 합리화하며 그리스도가 피 흘려 구원하신 자기를 결코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기에 성도는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그분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 6:3).

3. 경건의 회복: "사랑의 판단"을 통한 "대항형성"적 실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을 낳는다. 참 경건(*pietas vera*)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비롯된다(Calvin, 2020a: 174).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의 규범"으로 수립하며, 그 규범을 지키는데 "열심"을 갖게 된다(문병호, 203-204).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에 빠져 살 수 없다. 비록 죄가 마음 속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죄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 연약함으로 죄에 잠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죄의 길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www.kci.go.kr

있지 않는다. 회개하고 다시 주의 길을 걷는다. 성도의 경건은 완벽함에 있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삶을 포기하지 않음에 있다. Calvin의 기독교 강요를 인용하며 문병호(2013)는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 "아무도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복음적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성도의 순전함을 요구하신다. 이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영혼의 순수한 단순성을 지니고, 심령에 받은 말씀대로 좇아 살고자 하는 올바른 영적 삶의 원리에 충실한 마음의 자세를 뜻한다. 지상의 삶의 가치는 선 자체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데 있다. 이는 육체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그분과 충만한 사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205).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성령의 처소로서 거룩이며 선 자체이신 그분께 이르도록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사 6:13; 시 145:9; 막 10:18; 롬 6:3-5, 8:16; 고전 3:16-17; 갈 3:27; 벧전 1:15-16). 따라서 중독으로부터 떠나는 비결은 끊임없는 경건의 실천이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중독에 빠지게 하는 세상의 불안과 고통, 공허함 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향한 실천을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지속하는 것이다.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경건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판단"이 필요하다. Calvin은 신앙 고백, 삶의 모범, 성례로 나타나는 성도의 표지는 "사랑의 판단(*caritas iudicium*)"으로 알 수 있다고 강론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분별력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문병호, 2014: 39-40). 이 판단은 "사랑을 분별하는 모종의 명철함"으로 신앙 고백과 삶의 증거, 성례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 된 성도 됨을 인식하게 한다(Calvin, 2020d: 59). 이 판단은 믿음의 지식이 가르치는 바와 일치하며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포함하고(마 22:37-40)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함으로 몸 된 교회를 세워간다(고전 8:9).

중요한 것은 사랑의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Calvin(2020d: 58)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이 인간의 의식 너머에 있다고 강조한다. 사랑의 판단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좇

www.kci.go.kr

음"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에 대한 일깨움으로부터 비롯된다(문병호, 2014: 38). 사랑의 판단이 죄로 타락한 이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자기기만과 합리화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김다고 하면서 공상으로 만들어 낸 우상을 섬기며 결국 자기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죄를 낳게 될 것이다. 사랑의 판단은 하나님 경외로부터 이루어지며,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으로부터, 그리고 그 지식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은혜로 임한다. 따라서 성도는 사랑의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며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다. 덕을 세우고 이웃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기초한 사랑을 경건으로 실천한다. 결과적으로 사랑의 판단은 "대항형성적(counterformative)" 실천을 만든다(Smith, 2016: 25).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습관에 대항하는 거룩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말씀 읽기와 정해진 기도, 하나님이 주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운동 및 식습관,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나눔, 예배를 위한 헌신, 구제나 지역사회 섬김, 봉사 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은 부정적 중독의 습관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강한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경건 습관의 형성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하는 예전적 요인이 되고, 그렇게 반복되는 삶의 예전은 참여하는 이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판단과 삶의 습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예전적 실천이 되기 때문에 자기만족의 병리적 도구로서 중독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건의 실천을 강조하는 이 논증이 의지적 노력만으로 모든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쉬운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의지적 노력만으로 중독 문제를 극복하려 한다면, 머지않아 "이중생활"에 빠져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이중생활(double life)"은 타인의 시선, 때로는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행위를 몰래 하는 것으로 중독 문제에 있어서 지극히 흔한 모습이다(Lembke, 2022: 22). 중독은 단순히 행위를 변화시키려는 의지적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 사랑과 경외의 대상이 변화될 때 가능하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중독의 죄를 미워하게 되고, 중독에 빠져 하나님 사랑과 경외를 잃은 죄를 진정으로 혐오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사람은 점진적으로 중독의 습관을 경건의 습관으로 바꾸어 갈 수 있

www.kci.go.kr

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기에 갈망의 습관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경건은 한순간의 의지적 행동이 아니라 일평생 성령을 따라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삶의 전반적인 태도이다. 그러므로 경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 임하는 은혜이다.

때로는 중독의 속박적 속성 때문에 중독의 습관으로부터 경건의 습관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이들의 삶이 "이중생활"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비록 더딘 회복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실천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외에서 비롯된 경건의 습관이라면, 이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변화이며 주의 날이 이를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거룩의 이른 열매일 것이다. 주의 날까지 경건의 실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자 결단하는 성도에게 다음과 같은 Calvin(2020c)의 논증은 큰 도전을 준다.

>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아버지로서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살지 않는다면, 그 극한 배은망덕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겨 깨끗게 하셨다. 또 세례를 통해 그 정결함으로 자기와 교통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들로 우리를 다시 더럽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의 몸에 접붙이셨다. 그러므로 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어떤 흠이나 점으로도 우리 자신을 흉하게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늘을 향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령은 우리를 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빛나도록 하고 더러운 죄로 우리를 더럽히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천상적인 순결과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까지 그것들을 순수하고 흠 없이 지켜가도록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해야 한다"(270-271).

www.kci.go.kr

4. 교회의 지도와 돌봄: 구속그룹과 돌봄 문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한다.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함께 자라고 세워져가는 부르심이 있다(엡 2:19-22, 4:15-16). 뿐만 아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이다(고전 12:26-27). 즉,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각자의 은사와 섬김으로 채우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함께 치유되며 자라나는 회복의 공동체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 지체가 경험하고 있는 중독의 문제는 결국 몸 된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Calvin(2020d: 42)은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어머니"로 주심으로써 "모성적 돌봄"으로 지속적인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고 강조한다. 교회는 일생동안 성도가 영생의 열매를 맺기까지 어머니처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지체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지고 서로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지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섬김과 돌봄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중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그들의 어머니처럼 인내와 사랑으로 돌보고 지도하고 회복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중독자를 위한 보호와 지도, 돌봄의 사명이 있다. 공동체의 사회적 지지와 보호, 돌봄은 중독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지속하는데 큰 유익을 준다. 초기 A.A.는 교회의 돌봄과 지도, 상호 책임의 기능을 했다. 초기 알코올 중독 회복 모임은 마치 교회의 소그룹처럼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구성원이 함께 삶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도록 인도했다. 초기 A.A.의 사례는 오늘날 교회가 중독자들을 섬기고 지도하기 위한 시도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소그룹 회복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속그룹(redemption groups)"은 교회가 중독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실천 중 하나이다. 구속그룹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구성원을 초청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마음을 깊이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 구속적 교제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소그룹이다(Meysenburg & Wilkerson, 2015: 104). 구속그룹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전인적 변화를 지향한다. 궁극적으로 구속그룹 안에서 구성원들은 죄의 회개와 개인적 회복을 넘어 하

www.kci.go.kr

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확장해간다.

기독교 진리가 가르치는 구속(redemption)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Christopher J. H. Wright(2006: 265)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출애굽(exodus)"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했다고 말하며 "탈출(exodus)"의 메타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모델이 된다고 논증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고통, 세상 무언가의 노예로 기능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변화된 실천, 하늘이 허락하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자기의 삶 속에 적용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다. 이에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강조한다(요 8:32).

이런 맥락에서 구속그룹은 각 구성원을 미혹하고 지배하고 있는 중독으로부터 "탈출(exodus)"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효과적인 안내가 될 것이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허망한 일과 일시적 만족에 속박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다(시 39:4-5; 시 94:11; 요 8:12; 14:27; 롬 8:6; 빌 4:7).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참 의지를 통해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시 62:5; 롬 9:24-25; 15:13; 갈 5:5-6; 고후 4:17-18; 벧전 1:21; 벧후 3:13). 따라서 교회가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 구속그룹을 운영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교회의 어머니 같은 돌봄이자 오래 참음과 변함없음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책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실천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는 구속그룹보다는 회복그룹(recovery groups)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되어왔다. 회복그룹은 중독, 학대, 외상 등의 어려움이 있는 교회 내 성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소그룹으로서 1980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회복 운동의 한 방편이다(고병인, 2018: 27). 회복그룹을 통해 중독, 학대, 트라우마, 낙태,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삶의 문제를 숨기며 죄책감과 수치심에 가운데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안전한 환경과 사회적 지지 가운데 자기의 문제와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돌아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Henslin, 1991: 257-58). 이 운동은 그동안 교회 문화가 성도들의 문제를 안전하게 수용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는 시도였고, 잃어버렸던 "고백과 나눔"을 통해 "초대 교회의 영성을 되찾는 운동"이었다(고병인, 2018: 33).

www.kci.go.kr

구속그룹은 회복그룹과 같은 맥락에 있으나 회복 자체보다는 구속을 좀더 강조한다. 구속그룹은 안전한 환경과 사회적 지지 속에서 진실한 고백과 나눔은 물론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재해석하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며, 십자가 용서의 은혜 앞에 자기 죄의 뿌리와 열매를 돌아보아 참된 회개와 감사를 누리며,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공동체를 지향한다(Meysenburg & Wilkerson, 2015: 106-113). 한 성령으로 한 몸 된 이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은 정죄나 가십,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억압해온 감정과 상처에 직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가운데 분노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건으로 죄 된 선택과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용서와 사랑,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천을 통해 구원의 전인적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1)]

한편, 안정적인 구속그룹의 형성을 위해 교회 공동체는 중독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적 낙인은 중독자의 회복을 방해하는 핵심요인 중 하나이다.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은 사회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속성이나 정체성이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평가절하하거나 회피하고, 차별적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과정을 의미한다(Link & Phelan, 2001). 이런 대중적 낙인은 낙인 대상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 거리감을 만들어낸다. 사회과학연구에 의하면, 중독자들은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독을 부정하거나 은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Hing et al., 2016; Wood & Elliott, 2020). 또한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은 수치심을 유발하여 회복에 이르기 전 치료를 중단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Horch & Hodgins, 2008). 특히 정신장애 유형에 따른 낙인 차이 연구에 의하면, 중독은 정신장애로 인식하기보다 성격 결함 및 의지 부족 등 개인적 요소로 귀인하는 경향이 크고, 조현병이나 우울장애를 가진 대상보다 중독자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높아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낀다고 한다(박근우, 서미경, 2012; 2017; Corrigan et al., 2003; Martin et al., 2000). 즉, 중독은 상대적으로 다른 정신장애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고, 위험성 인식과 사회적 거리감이 높아 대중들의 편견과 차별을 낳는다는 것이다.

교회 구성원도 이런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낙인 문화 속에서 교회

1) 구속그룹의 내용과 구성, 전략에 대해서는 Meysenburg & Wilkerson(2015: 104-120)을 참고하라.

www.kci.go.kr

구성원 역시 중독자에 대한 불편한 시선과 거리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들의 피난처이고 쉼터였다. 성경은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재” 대신 “기쁨의 기름”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줄 것이라 기록한다(사 61:1-3). 실제로 진리의 성육신이신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다(마 9:10; 21:31).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교회는 중독자들에 대한 공동체의 부정적 시선을 지지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수의 연구가 정서적 유대와 관심, 사회적 지지는 중독자 회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이상주, 김정훈, 2019; 한인영, 우재희, 2011). 만약 교회 공동체가 술주정꾼, 약쟁이, 의지박약자, 도박충, 게임충 등 중독자들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내려놓고 회복과 변화를 위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용기 있는 투쟁의 이미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교회는 소그룹 내 구성원들의 지지뿐만 아니라 집단 외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집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정서적 유대와 사회적 지지 문화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는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아 스스로의 취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이며 새로운 삶으로의 도약을 위한 도전으로 격려받아야 할 실천이다(Brown, 2015).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안전한 문화적 환경이 제공된다면, 중독자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중독치료의 방해요소들을 극복하고, 좀 더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여 더 빠른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구해 회복과 변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II. 닫는 글

결론적으로 중독은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고 의존하여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그 대상을 탐닉하는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사고와 행동 양식이 과의존 대상에 속박된 상태를 지칭한다. 죄의 범주로 살펴볼 때, 중독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의 우상이 표현되는 한 형태이며,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의 부재, 그로 인한 하나님 경외의 상실, 그 결과 나타나는 자유의지의 남용이다.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중독과 관련하여 죄를 고려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주권적으로 운행하는 구원

www.kci.go.kr

드라마 안에서 죄로서의 중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중독으로 기울어졌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돌이키게 하며, 진리에 기초한 사랑의 판단은 중독에 대항형성적 실천을 야기함으로 경건의 습관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구속그룹과 돌봄의 문화를 형성하여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거룩을 향한 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체를 격려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죄에 대한 고려만으로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중독은 신경생리, 심리, 가족, 사회문화를 포함하는 인간의 전인적 질서 전반을 망가뜨려 놓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 문제와 더불어 중독과 관련된 창조 질서의 왜곡(dis-order),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고통의 문제, 그에 따른 치료적 개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독에 대한 장애 및 질병, 고통의 범주에 대한 논의는 후속연구로 다루고자 한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구원드라마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정체성은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규정되고, 전인의 온전한 질서와 삶의 의미, 목적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 가치, 실존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 닮음(Christiformity)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궁극적인 기준이자 규범, 인생의 방향이자 과정이다. 그러므로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 닮음을 한 평생 잃지 않는다면,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세상의 헛된 것에 종노릇하던 삶에서 벗어나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진리가 자유케 함을 점차 경험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 논문 투고일: 2023년 01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03월 05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03월 09일

√ √ √ √

www.kci.go.kr

【참고문헌】

강선경, 이중교 (2021). 여성 알코올의존자의 중독과 회복과정에서의 가족관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4), 143-171. http://dx.dol.org./10.16975/kjfsw.68.4.5

고병인 (2018). 중독시대,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편저). **중독과 영성**, 9-58. 서울: 학지사.

김규보 (2021). 기독교 상담의 텔로스: 기독교 아비투스로서의 상담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 **성경과 신학**, **98,** 33-70. http://dx.doi.org/10.17156/BT.98.02

김규보 (2021). 죄 진단을 위한 기독교 병리학 체계와 치료적 함의. **신학과 실천, 76**, 339-366. http://dx.dol.org./10.14387/jkspth.2021.76.339

김영희 (2016). 알코올중독방지협회(A.A.)의 역사를 통해 얻은 목회상담학의 교훈: 치유법에 초점을 맞추어. **ACTS 신학저널**, **30**, 11-53. http://dx.dol.org./10.19114/atj.30.1

김정숙, 전아영, 김정희, 김계순, 김명찬, 금창민 (2021). 여성 알코올 중독자의 중독과 회복과정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사회적 낙인과 지지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9**(5), 117-146. http://dx.dol.org./10.18230/tjye.2021.29.5.117

김청송 (2016). **사례중심의 이상심리학(DSM-5) 제2판**. 서울: 싸이북스.

문병호 (2013).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 서울: 부흥과 개혁사.

문병호 (2014). 칼빈의 성도의 표지론: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 관한 교리적 고찰. **성경과 신학, 71**, 23-58.

민정원, 신정호, 민성호, 안정숙, 박기창, 김민혁 (2010). 남자 알코올의존 환자들의 사회지향성과 집단주의적 성향에 대한 단면적 연구. **중독정신의학 14**(2), 57-62.

박근우, 서미경 (2012).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수정된 귀인정서모형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64**(4), 209-231. http://dx.dol.org./10.20970/kasw.2012.64.4.009

박근우, 서미경 (2017). 행위중독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정. **한국사회복지학, 69**(3), 241-265. http://dx. dol.org./10.20970/kasw.2017.69.3.010

신성만 (2018). 중독상담의 기독교적 접근: 동기균형과 동기강화상담. 한국기독교상담

www.kci.go.kr

심리학회(편저). **중독과 영성**, 59-83. 서울: 학지사.

이상주, 김정훈 (2019).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 우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60**, 101-120. http://dx.dol.org./10.35422/cwsk.2019.60.101

이소영, 양영미, 윤지영 (2021).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변화와 자존감, 인터넷 중독의 관계: 20, 30대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1**(2), 81-106.

천수업 (202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외로움과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8**(4), 119-146. http://dx.dol.org./10.34244/JFOYS.2021.18.4.6

최정헌 (2018). 12단계와 영성.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편저). **중독과 영성**, 275-320. 서울: 학지사.

한인영, 우재희 (2011). 여성알코올중독자의 변화 동기와 삶의 의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9**, 90-119.

홍이화 (2011). **하인즈 코헛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I.**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Arterburn, S., & Stoop, D. (2012). *The life recovery journey.*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Publishers.

Augustine. (2017). **기독교교양** (김종흡 역, *De Doctrina Christiana*).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원전 397 출판).

Augustine. (2016). **고백론: 라틴어 원전 완역판**(박문재 역, *Confessiones*).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원전 397-400 출판).

Bavinck, H. (2011). *Reformed dogmatics: A bridged in one volume.* John Bolt(Ed.). Grand Rapids, MI: Baker Acadamic.

Bayly, L. (1994). *The practice of piety.* Morgan, PA: Soli Deo Gloria.

Beeke, J. E., & Smalley, P. M. (2019). **존 번연의 경외**(신현국 역, *John Bunyan and the grace of fearing God*). 서울: 솔로몬. (원전 2016 출판).

Benn, P. (2007). Disease, Addiction and the Freedom to Resist. *Philosophical Papers, 36*(3): 465-481. https://doi.org/10.1080/05568640709485210

Brown, B. (2015). *Daring greatly: How the courage to be vulnerable transforms the way we live, love, parent, and lead.* New York, NY: Avery.

www.kci.go.kr

Corrigan, P. W., Markowitz, F. E., Watson, A., Rowan, D., & Kubiak. M. A. (2003). An attribution model of public discrimination towards persons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 162-179.

Calvin, J. (2020a).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 강요1**(문병호 역,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서울: 생명의 말씀사.

Calvin, J. (2020b).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 강요2**(문병호 역,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서울: 생명의 말씀사.

Calvin, J. (2020c).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 강요3**(문병호 역,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서울: 생명의 말씀사.

Calvin, J. (2020d).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 강요4**(문병호 역,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서울: 생명의 말씀사.

Carder, H. E. (1991). How the local church can help. *Secrets of your family tree: Healing for adult children of dysfunctional families* (pp. 257-265). Chicago: Moody Press.

DeClaissé-Walford, N., Jacobson, R., & Ranner, B. L. (2019). **시편**(강대이 역, *The book of Psalm*).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14 출판).

Dodes, L. M. (2002) *The Heart of addiction.* New York, NY: HarperCollins Publishers.

Essig, T. (2012). The addiction concept and technology: Diagnosism metaphor, or something else? A psychodynamic point of view.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8*(11): 1175-1184.

Frame, J. M. (2015). **기독교 윤리학**(이경직 역,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서울: P & R.

Grogan, G. (2014).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성경신학 (김광남 역, *Nothing greater, nothing better*). In Kevin J. Vanhoozer(Ed). **하나님의 사랑**. 서울: 이레서원. (원전 2001 출판).

Gorman, M. J. (2010). **삶으로 닮아내는 십자가: 십자가 신학과 영성**(박규태 역, *Cruciformity: Paul's narrative spirituality of the cross*) 서울: 새물결플러스.

Heyman, G. M. (2009). *Addiction, a disorder of choice*. Cambridge:

www.kci.go.kr

Harvard University Press.

Hing, N., Nuske, E., Gainsbury, S. M., & Russell, A. M. (2016). Perceived stigma and self-stigma of problem gambling: Perspectives of people with gambling problems. *International Gambling Studies, 16*(1), 31-48.

Horch, J. D., & Hodgins, D. C. (2008). Public stigma of disordered gambling: Social distance, dangerousness, and familiari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5), 505-528.

Keller, T. J. (2011). *Counterfeit Gods: The empty promises of money, sex, and power, and the only hope that matters.* London, UK: Penguin books.

Lambert, H. (2015). *Finally free: Fighting for purity with the power of grace.* Grand Rapids, MI: Zondervan.

Lembke, A. (2022). **도파민네이션**(김두완 역, *Dopamine nation: Finding balance in the age of indulgence*). 서울: 흐름 출판. (원전 2021 출판).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63-385. https://doi.org/10.1146/annurev.soc.27.1.363

May, G. G. (2005). **중독과 은혜**(이지영 역, *Addiction and grace*). 서울: IVP. (원전 1988 출판).

Martin, J. K., Pescosolido, B. A., & Tuch, S. A. (2000). Of fear and loathing: The role of 'disturbing behavior,' labels, and causal attributions in shaping public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208-223.

Meysenburg, A., & Wilkerson, M. (2015). Biblical counseling and redemption groups. In Kevin Carson(Ed.). *Biblical counseling and the church: God's care through God's people* (pp.104-120). Grand rapids, MI: Zondervan.

Ragge, K. (1992). *The real A.A.: Behind the myth of 12-step recovery.* Tucson, AZ: Sharp Press.

Redish, A. D., Jensen, S., Johnson, A. (2008). A unified framework for

www.kci.go.kr

addiction: Vulnerabilities in the decision proces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1*(4), 415-37. https://doi.org/10.1017S0140525080472X

Rosenberg, K. P., Carnes, P., & O'Connor, S. (2014). Evaluation and treatment of sex addictio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40*(2), 77–91. https://doi.org/10.1080 /0092623X.2012.701268

Rutherford, M. J., Cacciola, J. S., & Alterman, A. I. (1999).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nd psychopathy in cocaine-dependent wome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6), 849–856. https://doi.org 10.1176/ajp.156.6.849452-462

Seeburger, F. F. (1993). *Addiction and responsibility: An inquiry into the addictive mind*. Chestnut Ridge, PA: Crossroad.

Smith, J. K. A. (2016). *You are what you love; The spiritual power of habit.*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Stein, D. J., Chamberlain, S. R., & Fineberg, N. (2006). An A-B-C model of habit disorders: Hair-pulling, skin-picking, and other stereotypic conditions. *CNS Spectrums, 11*(11), 824–827. https://doi.org/10.1017 s1092852900014978

Vanhoozer, K. J. (2017). **제일신학: 하나님, 성경, 해석학, 삼위일체**(김재용 역, *First theology*). 서울: IVP. (원전 2002 출판).

Welch, Ed. (2001).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Phillipsburg, NJ: P & R.

White, W. L. (1998). *Slaying the dragon: The history of addiction treatment and recovery in America*. Bloomington, IL: Chestnut Health Systems/Lighthouse Institute.

Wright, J. H. C. (2006).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Westmont, IL: IVP.

Wood, E., & Elliott, M. (2020). Opioid addiction stigma: The intersection of race, social class, and gender. *Substance Use & Misuse, 55*(5), 818–827. https://doi.org/10.1080 /10826084.2019.1703750

www.kci.go.kr

【Abstract】

A Christian Pathological Diagnosis on Addiction in terms of Sin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s

Kim, Kyu Bo*

Since human beings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human pathology cannot be understood, excluding God's existence and his creation order. A Christian pathology that considers the categories of sin, dis-order, and suffering enables a christian counselor to make a diagnosis in a holistic level regarding a counselee's problem. This study proposes a christian pathology of addiction in terms of sin, and presen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biblical counseling. Addiction essentially is a state in which the *ordo amoris* established by God is broken. Addiction is a reality that reveals the idol of the heart derived from self-love, and which stems from the absence of true knowledge of God. The absence of the knowledge in turn leads to the loss of awe, and it causes the will for his own glory, which eventually makes people addict on a worldly thing. The primary implication of such understanding is that the ultimate help comes from Christ. Also theknowledge of God in Christ provides a cognitive interpretative framework, seeing everything with new eyes in God's order, giving emotional impression, and presenting a new way of life. This leads to a habit of piety that forms counter-addiction practices in the judgment of love. In that process, it is God's calling that the church persistently takes care of the addicts within a redemption group and creates supportive culture wiping out the social stigma on addiction.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category of sin, and it is suggested that other categories of Christian pathology on addiction be addressed in subsequent studies.

Key words: addiction, Christian pathology, sin, Christiformity, biblical counseling

---

* Chongsh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 Assistant Professor

www.kci.go.kr